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6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림

성경: 골 1:18 하, 17 하, 3:11 하, 계 2:4-5, 22:1-2 상

[골 1:18] 또한 그분은 봄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 1: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골 3: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큰 바퀴에 비유될 수 있다(비교 젤 1:15). 그리스도는 바퀴통(중심 혹은 하나님의 중심)이시고 그리스도는 테(둘레 혹은 하나님의 중심부)이시다 —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네”(영한 동번 찬송 513장 원문 참고).

[겔 1:15] 내가 생물들을 살펴보다 생물들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네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 II.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아들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골 1:18 하, 17 하, 3:11 하.

[골 1:18] 또한 그분은 봄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 1: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골 3: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A.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 — 암 1:10.

[엡 1:10] 때가 할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엡 1:22-23)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과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불교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창 1:1-2, 2 절의 모든 각주).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밭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창 1:1-2]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2)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2.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분배하여, 그들을 죽여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에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서 성취된다 — 요 1: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롬 8:10, 6, 11.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유품이 되시게 하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왕들과 왕국들을 포함하여 우주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신다 — 단 4:17, 26.

[단 4:17] 이 일은 감시자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 결정은 거룩한 이들의 지시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며 가장 비천한 이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 있는 이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 4:26] 그 나무의 뿌리등걸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4. 그리스도께서 유품이 되시려면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할 선택된 백성이 필요하다.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유품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 — 롬 8:28-29.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뜨신 돌로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부수신 후에,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시고 그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 단 2:34-35, 44-45, 계 17:14, 19:7-8, 11, 14, 19.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밭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단 2:44-45]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45) 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계 17:14] 그들이 어린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계 19:7-8]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계 19:11]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계 19: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계 19:19]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3.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고 산이신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 액 1:23, 4:10.

[액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액 4: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 III.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 되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봄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 73:25-26]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26)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둑이십니다.

[시] 80:17-19]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엮어 주십시오. (18)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9)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 A. 교회가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타락과 악의 원인이다 — 렘 2:13.
-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 B. 시편 80 편 17 절은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 곧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가장 높은 지위, 으뜸의 위치가 주어졌다 — 행 2:33, 5:31, 빌 2:9-11.
- [행 2: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행 5: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빌 2:9-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 C.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된다 — 시 80:18-19.
- [시 80:18-19]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9)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 D.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 곧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 곧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비주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 — 겸 47:1, 계 22:1-2, 21:21 하.
- [겸 47:1]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 갔다.
-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계 21:21]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1.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어린양-하나님, 곧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를 공급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삼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양과 그 영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보좌, 곧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 — 계 22:1-2, 비교 요 4:14 하.
-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요 4: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2. 우리는 “주님, 나의 삶 속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내 존재의 중심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주님, 온종일 나의 일상생활 전체를 당신의 보좌 아래로 이끄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들로 가득한 것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보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며 행정적인 권위와 왕국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행정적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보좌이시다 — 사 22:23, 히 4:16.

[사 22:23]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나는 그를 박으리니 /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E.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보좌를 위에 지닌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 갤 1:22, 26-28.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겔 1:26-28]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27)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습이 호박금의 모습 같았고 사방이 불로 뒤덮인 모습 같았다.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 같았다. 그분 주위에는 사방으로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28)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옆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이 있는지는 우리의 양심에 달려 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 롬 9:1, 고후 1:12.

[롬 9: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사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 서로 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을 것이며,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질 것이다 — 행 24:16, 딤전 1:5, 19, 3:9, 딤후 1:3, 비교 마 5:8, 잠 22:11, 딤후 2:22.

[행 24: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딤전 1: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딤전 1: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

[딤전 3:9]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딤후 1:3]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 22:11] 마음의 순수함을 사모하고 / 그 말이 은혜로운 이는 왕을 친구로 삼게 된다.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3.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 사 22:23, 히 4:16, 롬 5:21, 계 22:1.

[사 22:23]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나는 그를 박으리니 /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4.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얻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위치를 얻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단 4:17, 25-26, 5:18-31, 사 6:1-8.

[단 4:17] 이 일은 감시자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 결정은 거룩한 이들의 지시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며 가장 비천한 이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 있는 이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 4:25-26] 왕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황소처럼 풀을 뜯으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게 되실 것인데, 이렇게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6) 그 나무의 뿌리등걸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단 5:18-31] 왕이시여, 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선왕께 왕권과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 하나님께서 선왕을 위대하게 하셨기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왕은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죽이기도 하셨고,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살리기도 하셨으며,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높이기도 하셨고,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시고 영이 너무 거만해지시어 교만하게 행하시다가, 옥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21) 선왕은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셨고 마음이 짐승의 마음같이 되어서 들나귀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왕께 황소처럼 풀을 드시게 하였고, 그 몸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를 그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22) 그런데 그 후손이신 벨사살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시기는커녕 (23) 오히려 하늘들의 주님이신 분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셨고, 하나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시어 왕과 왕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셨으며,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친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그리하여 그분 앞에서부터 손의 그 부분이 보내어져 이 글자가 새겨진 것입니다. (25) 쓰인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26) 이것에 대한 해독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시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며, (28)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9) 그러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며 그가 왕국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였다. (30) 바로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살해당하였다. (31)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육십이 세가량이었다.

[사 6:1-8]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2)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3)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4) 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5) 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음이라!"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솟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7)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달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8)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5.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높고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맑은 하늘 위의 보좌를 갖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의 모양’은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청옥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하늘에 속한 색깔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가 있는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가리킨다 — 출 24:10.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출 24:10]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7.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 창 1:26, 계 11:15, 3:21, 22:3-5, 롬 5:17, 21.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계 22:3-5]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F.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도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고후 4:5, 비교 히 1:3, 8:1, 12:2, 시 80:1, 17-19, 110:1-7.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히 1: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8:1]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시 80:1]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시 80:17-19]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엮어 주십시오. (18)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9)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110:1-7]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 “내가 너의 원수들을 /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4)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 영원한 제사장이다.” (5)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어 /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6)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시어 / 시체로 그곳을 가득 채우시며 / 큰 땅의 머리를 / 쳐부수시리라. (7) 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

1. 우리의 일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께 그분의 위치인 보좌 위에 앉으시도록 해야 한다 — 비교 아 1:1-4, 사 6:1, 3, 요 12:41.

[아 1:1-4] 솔로몬의 아가.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3)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좋아 달려가렵니다—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사 6:1]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웃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사 6:3]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요 12:41] 이러한 말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2.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다만 우리의 인격이다 — 고후 4:10-13, 요 12:24-26, 비교 뉴 12:49-50.

[고후 4:10-13]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요 12:24-26]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뉴 12:49-50]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50)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3. 주님께서 “잘 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초월한다. 하늘에 속한 웃는 얼굴은 땅에 속한 모든 화난 얼굴을 초월한다.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초월한다 — 마 25:21, 23, 렘 1:7-9, 18-19, 단 4:26.

[마 25:21]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마 25: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렘 1:7-9]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내든 너는 가야 하고 / 내가 무엇을 네게 명령하든 너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8)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 주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9) 그러시고 나서 여호와는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내 입에 대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 “이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렘 1:18-19] 이제 내가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놋 성벽으로 만들어 온 땅과 맞서게 하고, 유다 왕들과 맞서게 하며, 고관들과 맞서게 하고, 제사장들과 맞서게 하며, 그 땅의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19) 그들은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단 4:26] 그 나무의 뿌리등걸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 G.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향한 다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준비된 작가의 봇이 되어, 그분의 온 존재에 따라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것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 시 45:1-2, 고후 3:3, 6.

[시 45:1-2]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봇과 같습니다. (2)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임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H. 땅 위의 상황이 어떠하든, 민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승리를 얻고 번영하시면서 타고 계신다. 그분은 승천하신 날부터 타기 시작하셨고, 승리 가운데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타실 것이다 — 시 45:4-5, 사 5:20, 6:1, 행 5:31, 계 6:2, 19:11-16.

[시 45:4-5] 왕은 진리와 온유와 의로 말미암아 / 왕의 광채 가운데 당당히 올라타십시오. / 왕의 오른손이 두렵고도 놀라운 일들을 왕께 가르칠 것입니다. (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 민족들이 왕 아래에 쓰러집니다.

[사 5:20]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 6:1]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행 5: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 6:2]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계 19:11-16]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13)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 I. 왕권에 있어서 조력자들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실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사 42:1-4).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 곧 공동 왕으로 다스리는 성도들을 통해 민족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시 45:16-17, 계 2:26).

[사 42:1-4] “내가 불드는 나의 종, / 내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이가 여기 있다. /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고 /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 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 가까스로 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 진리 안에서 정의를 가져오리라. (4) 땅에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 그는 피곤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리니 / 해안 지역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리라.”

[시 45:16-17]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의 뒤를 이으며 / 왕은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7) 제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할 것이기에 / 백성들이 왕을 영원무궁히 찬양할 것입니다.

[계 2: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 J.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시기 위하여 돌아오실 수 있는 교두보이다 — 시 48:2, 단 2:34-35.

[시 48: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 온 땅의 기쁨인 / 북편 끝 시온산! /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 K.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 시 24:7-10.

[시 24:7-10]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어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만군의 여호와 /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1. 성문들은 민족들의 성에 있는 것이며, 문들은 백성의 집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이시다(학 2:7).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관념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다(벧후 3:8-9), 따라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래 견디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

[학 2:7]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벧후 3:8-9]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과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9)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2. 영광의 왕은 만군(곧 군대들)의 여호와, 즉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체현 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다(눅 21:27, 마 25:31). 여호와는 예수님께서며, 예수님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싸움에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마 1:21, 계 5:5).

[눅 21:27]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 25:31]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마 1: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5: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펼 수 있습니다.”

3.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시어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실 분이시다 — 단 2:34-35, 7:13-14, 을 3:11, 계 11:15, 19:13-14.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단 7:13-14] 내가 밤의 이상들 가운데 살펴보니 / 하늘의 구름을 타고 /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오시는데 /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와 /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14)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을 3:11] 주변의 너희 모든 민족들은 / 속히 와서 / 모여라.” /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 19:13-14]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 L.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무궁하고, 공평의 왕권은 그분의 왕국의 왕권이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께 부으시어 그분의 동반자들 위에 두셨다 — 시 45:6-7, 히 1:8-9.

[시 45:6-7] 오, 하나님! 왕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7)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을 미워하시기에 /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어 / 왕의 동료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히 1:8-9]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왕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9)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 IV.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색인) 흥옥수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인) 벽옥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온 존재의 수혜자들이 되어, 풍성한 생명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 계 4:3, 21:10-11 상, 롬 5:10.

[계 4: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흥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